

‘미국 권력 서열 3위’ 하원의장 해임

234년 미국 의회 역사상 최초...정국 안갯속

공화당 강경파 반란에 민주당 의원 전원 찬성표

미국에서 대통령, 부통령에 이어 권력순위 3위인 케빈 매카시(공화) 하원의장이 전격 해임됐다. 234년 미국 의회 역사상 하원의장이 해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하원은 3일(현지시간) 전체 회의를 열고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해임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16표, 반대 210표로 해임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해임결의안 가결 이후, 케빈 매카시(공화) 하원의장은 재촉하지 않기로 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매카시 의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의장직을 떠난다”며 “재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가결은 ‘반란’을 주도한 공화당의 강경파 의원 8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당론으로 ‘해임 찬성’ 입장을 정한 민주당 의원 전원이 가세했다.

앞서 공화당 강경파인 맷 게이츠 하원의원은 매카시 의장이 추진한 임시예산안 처리에 반발해 전날 매카시 의장 해임결의안을 제출했다.

매카시 의장은 이에 “해볼 테면 해보라”는 자신 만만한 반응을 보이며, 다음날 곧바로 표결에 나

섰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일부가 매카시 의장을 도울 것이라 전망이 나왔지만, 매카시 의장과 민주당은 모두 주고받을 것이 없다며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특히 민주당은 매카시 의장이 최근 추진한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조사 등을 이유로 매카시 의장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해임 찬성 당론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의회는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 이전 연방정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공화당 강경파가 대폭적인 예산 삭감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논의가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해 왔다.

셋다운(연방정부 기능 마비)이 코앞까지 다가온 상황에서 매카시 의장이 지난달 30일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제외한 45일짜리 임시 예산 처리에 나서며 일단 정부 셋다운 상황은 피해 갔다.

하지만, 같은 당 강경파 의원들은 이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며 해임 결의안 추진에 나섰다. 결국 매카시 전 의장은 하원에서 처음으로 불신임당한 하원의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자리

에서 물러나게 됐다.

초유의 해임 사태로 인해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물론, 하원 전체가 당분간 예측할 수 없는 대혼란 상태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하원 운영위원장으로 매카시 의장의 측근인 공화당 톰 콜 의원은 “해임결의안에 찬성한 사람들을 포함해 누구도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며 “그들은 대안도 없으며, 이는 단순히 혼란을 위한 투표일 뿐”이라고 규탄했다.

일단 하원의장 자리가 공석이 된 만큼 후임 선출이 시급하지만, 다수당인 공화당 내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데에는 대체적 의견이 일치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번 하원의장 해임사태로 인해 공화당에서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커진 데다가, 여당인 민주당과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간 신뢰의 기반도 무너짐에 따라 의회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기대하기 어렵게 돼 미국 정국이 안갯속에 빠졌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국 하원에서 하원의장에 대한 해임결의안이 제출된 것은 조지프 케년(1910년)·존 베이너(2015년) 하원의장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베이너 전 의장의 경우 해임결의안 제출 두 달 뒤에 전직 사임한 바 있다. /연합뉴스



멕시코 남서부 미국행 도강 행렬 3일(현지시간) 멕시코 남부 치화화주의 시우다드 후아레스에서 서리오그렌데강을 건너 미국으로 가려는 이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미국 남서부에 가뭄이 심해지자, 수위가 낮아진 강을 건너는 이들이 늘었다. /연합뉴스

대만 검찰, 선거 출마 친중파 정치인들 기소

“중공산당 홍보하고 자금도 받아”

내년 1월 총통선거를 앞둔 대만에서 검찰이 일부 친중파 정치인들에 대해 중국 공산당의 지시로 현지 선거에 출마했다는 혐의를 적용, 기소했다.

4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타이베이 지방검찰은 전날 대만인민공산당의 린더양 주석과 정젠신 부주석 등에 대해 대만 선거에 대한 영향력 행사와 공산주의 이념 선양 등 ‘반침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안(중국과 대만) 사업가로 대만 국민당의 중앙위원이었던 린씨는 2016년 국민당에서 제명된 후 이듬해인 2017년 대만인민공산당을 창당한 후 당 주석직을 맡았다.

그는 중국 당국에 포섭돼 2017년 대만인민공산당 주석 신분으로 여러 차례 중국을 방문했고, 중국 정부의 대만 사무 총괄 조직인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의 관리를 대만으로 초청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린 주석이 대만사무관공실 정당국 후춘광 부처장의 지시에 따라 대만에 대한 통일전선

술 관련 행사를 개최해 중국 공산당 이념을 홍보하고 해당 성과를 중국 당국에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린 주석은 2018년에는 원난성 대만관공실의 장자오더 주임의 지시를 받아 남부 타이난시 시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린 주석이 정 부주석에게도 1만 달러(약 1358만원)의 현금을 제공하면서 지난해 타이베이 시의원 출마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린 주석은 또 중국 푸젠성 대만사무관공실이 제공한 중국산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를 불법 수입해 배포하고 대만 내 행사와 선거에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린 주석은 중국 고가 술인 마오타이주의 대만 내 수입 판매 및 중국 인사의 대만 방문 업무 처리 등 중국 당국의 비호 아래 사업도 키웠다고 검찰은 언급했다.

검찰은 린 주석과 정 부주석이 사익을 위해 해외 적대 세력의 지시와 금전적 도움 속에 장기적이고 계획적으로 대만의 주권과 자유 민주주의 헌정 질서에 위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한인 사업가, 미시카고에 첫 카지노 문 열어

2조3000억원 투입 영업장 개관

‘카지노 금지 구역’이던 미국 시카고에 첫 카지노가 문을 열었다.

3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들에 따르면 시카고시의 첫 카지노 사업 운영업체로 선정돼 17억 달러(약 2조3000억원) 규모의 최첨단 시설을 짓고 있는 대형 카지노 리조트 업체 ‘발리스(Bally’s Corp)’는 도심 상업지구의 유서 깊은 건물 ‘메디나 템플’(지하 1층·지상 4층)을 임시 영업장으로 개조하고 이날 공식 개관식을 가졌다.

개관식에는 시카고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카지노 사업권을 따낸 한인 사업가 수 김(48·한국명 김수형) 발리스 회장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 제시 화이트 전 일리노이 총무처 장관 등을 비롯한 지역 정·재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존슨 시장은 이 자리에서 “카지노 사업을 통해 거두는 세금을 (만성 적자 상태인) 경찰·소방 공무원 연금 기금을 지원하겠다. 이곳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아니라 시카고를 실질적으로 강하고 활기찬 도시로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리스는 지난달 9일부터 메디나 템플에 56세트의 테이블 게임을 개입하고 750여 대의 슬롯머신을 설치하고 시범 영업을 했다.

시카고 포스트는 발리스가 메디나 템플에서 임시 영업을 하는 동안 시카고시는 연 5000만 달러(약 680억 원)의 세수를 거두게 된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시카고 카지노 고객은 다른 곳들에 비해 더 젊고 테이블 게임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이곳 주민과 여행객의 인구 구성이 반영된 듯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충격 사건 방목 쇼핑몰서 대피하는 사람들 3일(현지시간) 홍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태국 수도 방콕의 시암 파라곤 쇼핑몰에서 사람들이 대피하고 있다. 이날 오후 관광객이 자주 찾는 이 쇼핑몰에서 14세 소년이 총격을 가해 중국과 미얀마 국적의 여성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했다. /연합뉴스

파리 올림픽 앞두고 ‘빈대 습격’에 프랑스 ‘패닉’

‘빈대 문제 ‘국가 비상사태’ 수준’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빈대 습격으로 프랑스가 패닉(공포)에 빠졌다고 영국 BBC 방송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BBC는 파리 등에서 빈대가 출몰해 ‘공중 공포증’을 불러일으키고 올림픽을 앞두고 공중보건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론들이 보도하지만 “일

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BBC는 그러면서 지난 몇 주간 빈대 목격 건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면 다만 이러한 증가 추세는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마르세유 주요 병원의 곤충학자 장미셸 베랑제는 “매년 늦여름이 되면 빈대가 크게 증가한다”면서 “사람들이 7~8월 이사를 많이 다니면서 집을 통해 빈대를 옮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파리에서는 아파트 거주자 10명 중 1명이 최근 5년 동안 빈대를 경험한 적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최근 영화관 등에서 빈대가 발견됐다는 보도 등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파리는 물론 프랑스 정부도 조치에 나서라고 촉구한 상황이라고 BBC는 전했다.

또 괴담들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빈대 문제가 ‘국가 비상사태’ 수준이 됐으면서 시민들이 지하철 좌석 덮개를 일일이 확인하거나 아예 서서 가는 것을 선호하기도 한다고 BBC는 전했다. /연합뉴스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